

기타마에부네(北前船)

오바마항은 육로뿐만이 아닌 해상 무역에서도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. 한국이나 중국과의 무역항으로 이용된 것뿐만 아니라 에도시대(1603년-1867년)와 메이지시대(1868년-1912년)에는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왕래하는 기타마에부네의 기항지로서도 번영했습니다. 기타마에부네는 와카사 지방에는 다시마와 청어를, 북쪽으로는 와카사산 기와를 운송했습니다. 와카사 기와는 특히 추위에 강하며, 항해 때는 배를 안정시키기 위한 누름돌로서 배에 싣고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이 기와는 홋카이도의 오타루 운하 주변 창고의 지붕에서 볼 수 있습니다.